

야, 단일화 시계 카운트다운...방식 등 수싸움 치열 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3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여론조사 경선 제안 국힘·윤석열 부정적 입장 민주 "힘든 싸움될 것" 예의주시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공식 제안에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어 단일화 파급력에 따라 대선 결과도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도 양측의 단일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를 향해 "정권 교체, 구체적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와 참모들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거듭 완주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선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모양새다. 윤 후보 측도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선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에 예상된다. 일단 안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단일화를 꺼냈다. 그는 회견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

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선택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론조사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윤 후보는 "고민해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 단일화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과 관련,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전혀 없고,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이라며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야권 후보 단일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따로 얘기할 것도 없이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안 후보의 합류까지 아니더라도 완주를 바랐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통합정부론'을 내세우며 안 후보에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안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 부동층(공약) 문제는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등을 만나면서 우리 후보가 합리적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혜와 그분들을 차기 통합 내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진행을 해왔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호남구애' 총력...청년층 공략 집중

민주, 이낙연 내세워 지지층 결집 국힘, 청년유세단 활동 표심 경쟁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호남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 수도권 등지에서도 바람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며, 윤 후보도 모처럼 찾아온 '호남 훈풍'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내세워 호남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재결집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

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호남에 상주시키고 이낙연 위원장의 부인 김숙희 씨가 동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광역·기초의원, 당원까지 지역의 풍부한 지지 조직을 동원해 지역 주요 지점에서 유세전을 펼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대선 기여도에 따라 공천을 주겠다고 하며 출마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의 최근 호남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 남성들의 윤 후보 지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더욱 분주해졌다. 20%대 '꿈의 득표율'을 목표로 적극적인 호남

공략을 펼치는 국민의힘은 지역의 '반(反)민주당'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자주 찾아 호남 표심에 직접 구애할 계획이다.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 호남행이 잦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 열차'를 타고 11~13일 호남을 순회했다. 앞으로도 당 후보와 대표가 직접 나서 분위기를 띄우고 그동안 물밑에서 다져진 지지 조직을 동원, 호남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등 지역 발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호남 표심을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마스크 한장 동봉' 연하장 발송,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연하장에 590원짜리 마스크 한장을 담아 3000여 선거구민에게 돌린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선관위는 지난 7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A씨를 6·1 지방선거 관련한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중 3436명에게 총 202만7240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단가 590원)를 연하장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윤 41.6% 이 39.1%"... '적폐수사' 발언후 이↑, 윤↓

리얼미터...안 7.7%, 심 2.8%
서던포스트, 윤 35.5% 이 35.0%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윤 후보는 0.2%포인트 하락한 48.8%, 이 후보는 1.8%포인트 상승한 42.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6.2%포인트다.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하룻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는 35.5%, 이 후보는 35.0%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0.5%포인트로 이 역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나란히 0.3%포인트 상승한 7.2%, 3%의 지지율을 보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윤 후보(43.1%), 이 후보(40.5%), 안 후보(1.9%), 심 후보(0.1%) 순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임의결기(RDD)로 무선(95%)·유선(5%)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30%)과 자동응답(70%)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11.2%였다. 서던포스트의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